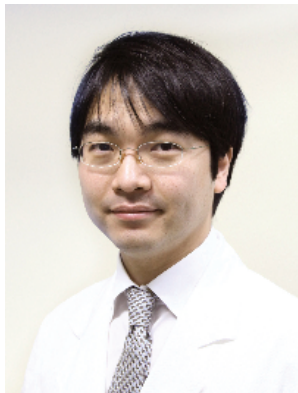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 우수초록상과 우수연구자상 동시 수상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는 6월 4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년 춘계신장학회에서 우수초록상과 우수연구자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수초록상은 ‘페리오스틴이 복막섬유화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우수초록상은 학회에 접수된 국내, 외 전체의 초록 중 내용이 우수한 6개의 초록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컸다. 또한 최근 2년간 우수한 논문을 출간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연구자상은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 사망을 예측하기 위한 동반질환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로 수상했다.

박재윤 교수는 “앞으로 복막섬유화에 관련된 인자를 밝히기 위한 실험 연구와 신이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계속하여 만성신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생존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 급성심근경색 환자 ‘자비 나눔 기금’을 통해 희망을 얻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자비 나눔 기금’을 통해 수술비 일부를 지원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이었던 송모씨는 치료비가 없어 수술치료를 하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기금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수술받기 전에는 걸음을 걷기조차 힘들어 일을 하지 못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아 월 1회 외래를 방문하여 검진만 받으면 될 정도로 회복 되었다. 송모씨는 “이제는 가벼운 몸으로 구직활동을 알아보는 중이며, 중년기 가장으로서 재기하는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치료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비 나눔 기금’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병원은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희망의 빛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3 일반인을 대상으로 갑상선에 대한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와 함께 6월 14일 14시부터 5층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는 제1부 ‘갑상선암의 진단 및 수술’과 제2부 ‘갑상선암의 수술 후 치료 및 관리’로 나누어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본원에서는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의 갑상선의 기능 및 갑상선의 질병, △핵의학과 여정석 교수의 방사성동위원소치료, △외과 광범석 교수의 갑상선암의 수술 후 합병증 및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갑상선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일반인을 위한 갑상선 이야기’ 책자를 제공한다.

04 그룹웨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오픈을 알리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정보팀은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본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룹웨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지난 5월 30일 완료했다.

그룹웨어 시스템은 본원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전 기관이 함께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다년간 사용에 의한 노후화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본원 의료정보팀과 주관부서인 본교 서울캠퍼스 정보관리처, 경주캠퍼스 정보관리실과 함께 그룹웨어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보완하고 그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웹 보안 취약점을 개선을 위한 보안 지침 준수 그래픽 인증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의료정보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IT 기술의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기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05 국제진료센터 전 직원 대상 외국어(러시아어) 교육 실시

국제진료센터에서는 6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내 직무향상을 위한 러시아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환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제진료사업과 관련하여 원내 자체조사 결과, 의료현장에서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및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시간 지연 등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직원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 및 외국인 환자들의 의사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 1시간 과정이며 많은 교직원들의 교육 참여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의사소통장애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불만요소를 최소화하여 대외적 신뢰도 향상과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06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한 아이스크림 이벤트 열어

영양팀은 유독 빨리 찾아온 이른 더위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6월 8일 직원식당에서 ‘아이스크림 북돋움 이벤트’를 실시했다.

1등인 연꽃상을 뽑아 고 퀄리티의 장미 아이스크림을 받은 직원은 “남자친구에게 꽃 선물을 받은 것처럼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직원식당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생기가 더해졌다.

영양팀에서는 병원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주기 위해 15년 4월부터 감작이벤트를 열어 교직원들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추운날 따뜻한 어묵 이벤트와 팝콘 이벤트는 최고 인기 이벤트였다.

